

[보도자료] 경북 우수상품 품평회 및 판매자 아카데미 개최

2020. 9. 24.



쿠팡은 경상북도, 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함께 경북 구미 금오산 호텔에서 쿠팡 입점을 희망하는 경북 소재 중소기업인들을 돕기 위한 '상품 품평회 및 쿠팡 셀러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왼쪽 네번째)와 전창록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왼쪽 세번째), 박대준 쿠팡 신사업 부문 대표(왼쪽 두번째) 등 주요 관계자들이 품평회에서 경북지역 우수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 경북지역 중소기업들 쿠팡 입점과 판매 돕는 '상품 품평회' '판매자 아카데미' 동시 진행
- 총 81개 경북 우수업체 참가 품평회 통해 직매입 로켓배송, 마켓플레이스 입점 기회 제공
- 쿠팡 카테고리별 상품전문가(BM)가 온라인 판매부터 마케팅, 홍보 전략까지 직접 컨설팅

2020. 09. 24. 서울 – 쿠팡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인들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쿠팡은 경상북도, 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함께 경북 구미 금오산 호텔에서 쿠팡 입점을 희망하는 경북 소재 중소기업인들을 돕기 위한 '상품 품평회 및 쿠팡 셀러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전창록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박대준

쿠팡 신사업 부문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중소기업들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경북 지역의 우수상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비대면·비접촉 '언택트 소비'가 각광을 받으며 온라인 쇼핑 입점을 희망하는 지역 중소기업인들이 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쿠팡에 입점을 희망하는 경상북도 소재의 중소기업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식품, 생활용품 카테고리 등 총 81개 업체가 참가해 상품을 선보이고 판매 노하우를 교류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상품 품평회를 통해 직매입 로켓배송이나 마켓플레이스 입점을 안내하는 시간과 함께 외부 전문가의 온라인 판매 마케팅 특강 등 온라인 판매가 생소한 지역 중소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들도 준비됐다. 더불어 쿠팡에서 현재 근무하는 카테고리별 브랜드 매니저(BM)가 직접 쿠팡 로켓배송 입점 방법과 마케팅, 상품 홍보, 상품검색 등 온라인 판매의 노하우를 현장에서 컨설팅하는 시간도 가졌다.

쿠팡은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모든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최근 발표한 '2020 쿠팡 소상공인 리포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국의 수많은 소상공인이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쿠팡 로켓배송을 통한 올해 2분기 소상공인 기업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4% 급성장했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이사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지역 중소기업인에게 이번 품평회는 새로운 판로의 출발점이자 더 많은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지역의 소상공인과 농수축산민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등 8개 정부부처 및 경북, 충남 등 지자체와 협력해 '힘내요 대한민국' 기획전 등 지원 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쿠팡은 경상북도, 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함께 경북 구미 금오산 호텔에서 쿠팡 입점을 희망하는 경북 소재 중소기업인들을 돕기 위한 '상품 품평회 및 쿠팡 셀러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오른쪽 두번째)와 박대준 쿠팡 신사업 부문 대표(왼쪽 두번째)가 품평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